

강원경제인상 대상에 서은택 (주)대한과학 대표

신기술인상 정홍걸 (주)에드바이오텍 대표
 건설인상 김래선 (주)동서 대표
 특별상 최재경 삼광기업(주) 대표
 정봉철 (주)대현 대표



◇서은택 대표



◇정홍걸 대표



◇김래선 대표



◇최재경 대표



◇정봉철 대표

13일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서 시상

서은택 (주)대한과학 대표가 제6회 강원경제인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원경제인상 심사위원회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강원 경제의 위상을 높이고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서 대표를 대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대한과학은 원주에 위치한 국내 최대 실험기기 제조 및 유통기업이다. (주)대한과학을 이끌어온 서 대표는 세계 최초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연구용 실험기기를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랩 시스템(모바일 제어 시스템)'을 개발, 세계 실험기기 시장에 강원기술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2010년 서울과 남양주에 있던 본사와 공장, 물류센터를 모두 원주시로 이전했으며 지난해에는 매출 340억원에 수출 500만 달러를 달성했고 실험기기 분야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신기술인상 부문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 정홍걸 (주)에드바이

오텍 대표에게 돌아갔고, 건설인상 수상자에는 (주)동서의 김래선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특별상은 최재경 삼광기업(주) 대표와 정봉철 (주)대현 대표가 선정됐다.

올해 강원경제인상에는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3주 동안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강원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및 영동지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단이 현장실사를 벌였으며 본심사위원회

는 최종 심사를 통해 5개 부문 수상자를 결정했다.

시상식은 13일 오후 2시30분 정선 하이원호텔에서 열리는 '2012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을 겸해 열린다. 대상 수상자인 서은택 대표에게는 트로피와 5,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신기술인상 수상자인 정홍걸 (주)에드바이오텍 대표와 건설인상의 김래선 (주)동서 대표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2,000만원, 특별상 2명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씩의 상금이 전달된다. 원선영기자

춘천~속초 고속鐵 개설 촉구 건의안의결

도의회 임시회 폐회

도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설 촉구 건의안,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 출자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도의회 개원 56주년을 기념해 '지역경제와 비즈니스 육성 전략'을 주제로 엄길청 경기대 교수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엄 교수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한 앞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어려울 것"이라며 "지역 대학 졸업생들이 소규모 창업 등에 나서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5분 자유발

언에서 함종국(새누리·횡성) 의원은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명문고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후원기업이 없어 힘들게 운영되고 있다"며 "도는 민사고에 대한 지원 약속을 조기에 이행하고 교육청과 횡성군도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병길(민주통합당·비례) 의원은 "지난 6월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출자출연기관이 지나치게 많으며 방만한 운영 탓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지만 후속조치가 미흡하다. 집행부는 도민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도의원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달 8일 제223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논의한다. 이성현기자 sunny@

혁신도시 내 공사현장 건설자재 도난 잇따라

700만원 상당 동관 등 사라져 CCTV 설치도 소용 없어 난감

혁신도시 내 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 도난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혁신도시 내 공사 업체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께 원주여고 공사현장에서 동으로 제작된 직경 32mm, 길이 60여m의 급수배관이 도난됐다. 더욱이 이 현장에서는 지난 7월말에도 에어컨업체가 설치한 32mm 굵기의 수백m에 달하는 700만원 상당의 동관이 도난돼 업체측이 CCTV 두 대를 자체적으로 추가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공사 관계자는 "아침에 출근하니 이달 초 시공을 마친 배관을 누군가 잘라갔다"며 "고가의 동파이프를 2

개월 사이에 연달아 도난 당했다"고 말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공사현장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전선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혁신도시는 기반공사와 함께 건물 신축 공사까지 본격 시작되면서 학교, 아파트, 공공기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면적이 361만2,000㎡에 달하는 등 매우 넓은데다 접근 도로가 많고 현장이 대부분 개방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현장관리가 취약해 크고 작은 도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업체들은 자구책 마련과 동시에 경찰 순찰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현장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업체들도 자체 경비를 하는 등 보안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원주=김설영기자 snow0@

평창 동계오륜 국비 조달 차질 우려

민주통합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56명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각 국제대회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지원 조항을 명시한 개정안을 제출,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과 충돌이 예상된다.

윤 의원 등은 10일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경기장 신·개축·보수 등 시설비 75% △인접 도로비 7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평창올림픽 수준의 국비 지원 조항이 포함됐다.

여야 국회의원 56명 인천AG 지원 개정안 제출 평창 특별법 충돌 예상... 도·정치권 공조 절실

또 안정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지방채를 국가가 인수해 2002 부산아시아게임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국제대회의 성공 개최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정부지원 의사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안정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국비 확보에 위기를 맞게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내달초 국

회로 제출되는 가운데 인천 지역 정치권의 요구가 반영될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국비 지원 배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도가 요구한 대관령식수전용 저수지 조성 사업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에서 제외했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인천 등 타 지역의 여론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국제스포츠 국비 지원 관련법이 통

과되면 이 같은 국비 배분에 대한 피해는 더욱 노골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최대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하는 도와 도 정치권으로서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대한 지원요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며 "도와 도 정치권의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예산 배분과 법적 제도적 틀내에서 올림픽 지원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박지은 pje@kado.net

도내 레미콘 제조업체 나눔실천 법인 설립

도내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했다.

도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재경)은 10일 도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소외계층의 복지증진사업, 유관기관 및 사회복지단체와의 협력사업 등을 수행할 사단법인 'GRC(Gangwon do Remicon Company) 사랑나눔회'의 설립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GRC 사랑나눔회'는 매년 도내 관수레미콘 수수료 0.1%(연간 1억3000만원)의 기금 가운데 일부를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사)GRC 사랑나눔회'는 도 레미콘공업협동조합 회원 95명으로 구성됐으며 회장은 최재경 이사장이 맡았다. 이사는 윤현중 (주)호반레미콘 대표, 김군환 (주)대명산업(주) 대표, 김기언 (주)금강레미콘 대표, 최상섭 (주)원주엔지니어링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감사에는 최종국 (주)대영레미콘 대표, 유상현 유덕레미콘 (주)대표가 선임됐다.

최재경 회장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만큼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나눔문화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과 사회의 공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